

변형의 가치

The Value of Transformation



신은기 Cinn, Eun-geee
 정회원, 인천대 도시건축학부 조교수
 Assistant Professor, Incheon National University
 eungeecn@inu.ac.kr

1950년대 미국 교외

20세기 중반은 전후 재건과 주택 공급으로 전세계적인 건설업계 호황기였다. 건축에서도 기술과 표준화에 기반을 두었던 모더니즘의 정신이 실제 산업계의 요구와 결합하여 꽃을 피웠다. 이미 도시 기반이 구축되어 있던 서구 국가들은 도시의 외곽으로 눈을 돌려 거대한 교외들을 탄생시켰다.

당시 미국의 대규모 주택개발회사들은 빈 토지 위에 마치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처럼 “17분에 1채씩” 집을 지어나갔다. 이 과정에서 자재와 공정의 표준화와 함께 평면의 표준화도 함께 이루어진다. 침실 개수가 면적이 되고, 면적이 곧 건축의 가치로 이어지는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점이다(그림 1 참조).

이러한 평면의 표준화에는 효율성과 경제성을 추구



그림 1. 레빗타운 하우스 주택의 부재들(출처: LIFE 1948년 8월 23일호)

했던 주택개발회사들만 참여했던 것은 아니었다. 대규모 주택개발회사들은 정부(FHA,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의 금융지원을 받았는데, 미리 건설자금을 지원해주고 주택들이 팔린 후 돌려받는 형식이었다.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개발회사들의 계획안이 FHA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안전한 자금 회수를 위해서 소위 쉽게 팔릴만한 주택 디자인이 중요했기에 당시 좀 실험적이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계획안들은 지원이 거부되기도 했다. FHA는 소규모 주택들을 위한 가이드라인(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Technical Bulletin No.4: Principles of Planning Small Houses, 1946)을 직접 출판했는데, 이 가이드라인은 단지계획에서부터 평면 계획, 화장실에 이르기까지 계획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계획안에서도 보여주었던 평면계획의 방식은 침실 2개와 거실, 부엌 겸 식당이라는 4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기본 구조가 침실 개수의 변화에 따라 변이되어 가는 과정이다. “비슷한 면적에 비슷비슷한 평면”에는 주택건설업자들과 정부, 그리고 당시 대중의 선호라는 3개의 축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다.

1950년대 미국 주택대량공급 시대의 건축가

“살기위한 기계”로서의 주거가 진정한 대량생산과 대량공급 속에 들어선 순간, 당시 미국의 건축가들은 이 둘 사이의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전개하였다. 그 이전 시기 건축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대량생산이라는 시스템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나 구조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고,

기존의 틀 안에서 좀 더 다른 공간의 경험과 생활 방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자 하는 노력들도 있었다. 가령 뉴욕현대미술관 하더라도 1945년 당시 건축 큐레이터였던 엘리자베스 목이 기획했던 “내일의 작은 집 (Tomorrow’s Small House)” 전시의 경우에는 기존 대형 주택개발회사들이 주로 사용했던 2×4 프레임 방식 대신 프리패널 패널을 이용한 주택 안들을 선보였으며, 1949년과 1950년 마르셀 브로이어와 그레고리 에인의 실물 크기 주택 전시에서는 구조나 형태 보다는 당시 주택개발 회사들의 평면을 발전시킨 공간들을 보여주었다.

당시 이러한 노력들이 바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준 것은 아니었다. 프리패널 공법의 경우 숙련된 노동력 부족 등으로 오히려 건설 단가가 높아져서 외면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이나 실험들이 단순히 건축가들 사회에서 이론적인 논의나 일부 부유층을 위한 주택에만 적용된 것도 아니었다.

중간층을 위한 소규모 대량공급주택을 위한 구조나 공간 구성에 적용되었던 건축적 실험들은 홀린 힐즈(버지니아 주)나 아이클러 홈(캘리포니아 주)과 같이 기존 레디메이드 주택과는 차별화된 대량공급주택들이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아이클러 홈의 경우에는 같은 지역에서 지역 건축가들에 의해 전개되었던 케이스 스터디 하우스 프로그램의 영향이 컸다. 아이클러 홈 역시 FHA가 제시했던 평면계획의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심지어 이른바 모던 스타일의 평지붕 대신

FHA가 권장하였던 박공지붕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클러 홈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공간의 경험은 기존 레디메이드 등 대표적인 교외 대량공급주택들과는 차별화되었다. 가족 단란을 위한 통합된 내외부 공간은 새로운 구조 표현 속에 담겼다. 아이클러 홈은 당시 미국 전역에서 빠르게 퍼져가던 균질화된 교외의 풍경에 어느 정도 다양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며, 대량공급주택에서 하나의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그림 2 참조).

1980년대 서울

1960년대 들어서면서 서울은 극심한 주택 부족에 시달리게 되면서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며 본격적인 주택 대량공급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다. 1950년대 미국 동부의 경우 대도시 외곽으로 교외를 형성해갔다던 서울의 경우 1980년대까지는 도시의 경계를 넓혀나갔다.

1960년대 현재 한남대교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고 강남지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면서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경부고속도와 평행하게 또는 수직으로 직교하는 간선도로들은 강남지역을 격자형으로 구획하며 슈퍼블록을 형성한다(그림 3 참조).

슈퍼블록의 내부는 또 다른 소규모 블록들로 다시 구분된다. 간선도로에 면한 블록의 외부는 고층 건물들로 채워지지만 블록의 내부로 들어서게 되면 저층의 건물들



그림 2. 아이클러 홈 내부(출처: Paul Adamson, Eichler: Modernism Rebuilds the American Dream, Gibbs Smith, 2002)



그림 3. 강남의 간선도로망과 슈퍼블록(출처: The Far Game: Constraints Sparking Creativity)

과 작은 도로들이 나타난다. 이곳에는 대도시의 밀도와 주거 중심의 교외 밀도가 공존한다. 이러한 밀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필지의 크기와 필지에 적용된 용적률이다. 간선도로를 따라서 지정된 상업지역에는 높은 용적률이, 이면을 따라서는 낮은 용적률이 적용된다. 슈퍼 블록의 내부들은 소규모 필지들로 채워져 있다. 그림 3의 A로 표기된 블록의 경우 약 1340개의 필지 중 300㎡ 이하 필지가 800개가 넘으며, 그 중 200에서 300㎡ 사이의 크기를 가진 필지가 500개가 넘는다(그림 4 참조).

1980년대를 거치면서 이러한 비슷비슷한 크기의 소규모 필지들을 채워나간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들 중 하나가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다. 1950년대 미국의 대형 주택 개발회사들처럼 우리나라의 중대형 건설회사들이 아파트를 공급해오는 동안 소규모 필지들의 경우 다세대 다가구 건물들이 서울의 주거난을 해소하고 있었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들은 일괄적으로 기획된 대량생산 주택은 아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을 거쳐 오며 급격하게 오르는 지가, 특히 집을 한채 지을 때 총 예산에서 지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땅의 효율성을 최대로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이러한 주택들은 대량생산 주택이 아님에도 일정 수준 표준화되어 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비교적 균질한 크기로 구획된 필지에 조닝에 따라 같은 용적률이 부여될 경우, 개별 건축물들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연면적들은 비슷하다. 건축의 가치가 대부분 토지에서 나타나게 될 때 건축물은 형태나 공간과 같은 논의들보다는 토지의 적층 개념으로서 층들과 이들을 연결하는 계단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거기에 경제성을 고려하여 가장 일반화된 구법과 재료의 적용을 더하게 되면 굳이 단일 회사에서 한 번에 생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비슷비슷한 건축물들이 나타나게 된다. 생산과정에서 나타난 표준화가 아니라 법제와 경제성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표준화 과정이다.

표준화와 변형

이러한 일종의 표준화 과정을 거쳐 나타난 건축물들이 슈퍼블록 내부를 채워감에 따라 언뜻 보면 서울의 어떤 도로의 풍경 역시 균질하게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 거리 속을 직접 다니다보면 균질함보다는 다양성이 더 눈에 들어온다.

토지가 가장 중요한 건축적 가치일 때, 토지의 적층으로서 건축물은 바닥 면적을 약간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 발코니와 외부계단 확장, 옥탑의 증축 등 약간의 면적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하여 각각 저마다 장치들을 부착하고 있다. 불법과 합법을 넘나들며 건축물은 제도와 경제성이 만들어낸 표준형을 벗어나 변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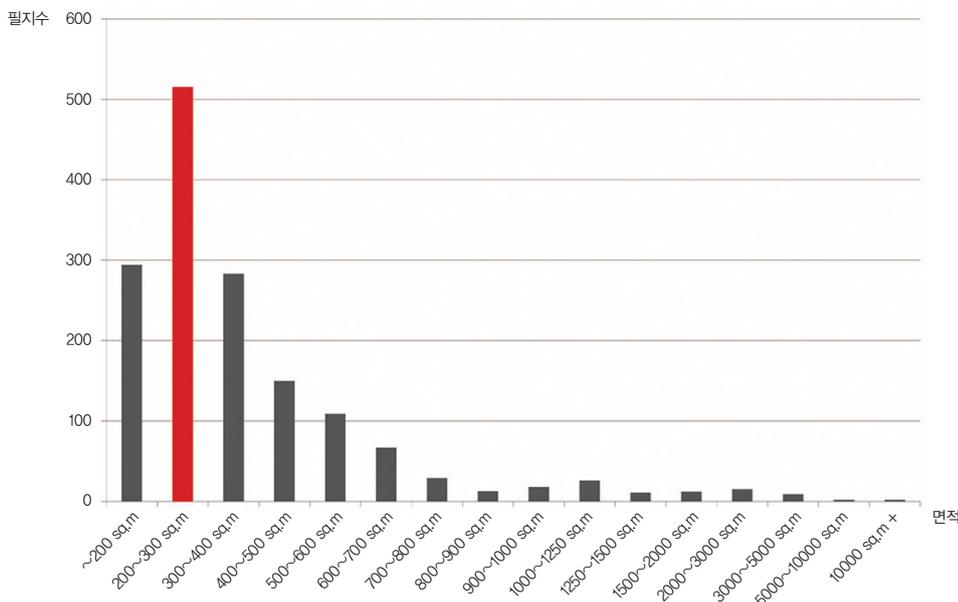


그림 4. 사례로 든 강남 슈퍼블록 내 면적별 필지 수(출처: The Far Game: Constraints Sparking Creativity)

이러한 변형들은 거주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가로경관을 망치고 혼잡스럽게 하는 주범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 곳에 사는 거주자들의 삶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가로를 생기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옥탑방과 발코니가 몇 m², 얼마짜리 공간에서 한 개인의 방이 되고 한 가족의 거실이 되는 순간이다. 표준화의 변형이 시각적 다양성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들의 다양성이 도시 가로로 표출되는 지점이다.

변형 과정 속의 건축가

최근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된 배경과 함께 이전에 비해 많은 건축가들의 소규모 건축물이 소개되고 있다. 일단 이러한 소규모 건축물들은 이면도로의 풍경을 지금까지 작은 변형들이 만들어왔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다채롭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건축물들 역시 지금까지 다세대, 다가구 주택들과 마찬가지로 법제와 경제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비엔날레 용적률 게임 전시에 참여했던 건축가들 역시 기존 비슷한 규모 건축물에서와 같이 면적의 확보라는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그렇지만 건축가들은 3차원적인 사고를 통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기존 표준화 과정 속 다세대, 다가구 건축물들이 추가의 면적 확보를 위해 수평적으로 변형을 진행해갔다면 이제는 이를 넘어 볼륨 게임이 이루어지게 되는 지점이다.

건축한계선까지 팽창된 부피와 용적률이 허가한 면적 사이에는 잉여 공간이 생기게 된다. 예전 사용자들이 변형을 통해 만들어내었던 발코니와 옥탑, 다락 공간들을 잉여 공간이 흡수하며, 이제 건축가들의 손에서 보다 합리적이면서도 도시 미관을 고려한 모습으로 통합되어 나타난다. 이 잉여 공간들은 사적 경계 내에서 개인의 삶의 면적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시도뿐만 아니라 거주자들의 공동체 공간을 만들고, 도시와 건축의 경계에 깊이를 주어 도시 가로를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동시

에 하고 있다. 면적의 가치가 극대화된 소규모 필지 속에서 찾아낸 작은 공동 마당은 매우 어렵게 일구어낸 성과이다. 기존 우리 도시 속 표준화 과정을 거쳐 생산되었던 다세대, 다가구 주택들이 변형을 거치며 만들었던 공간적 유전자들은 건축가의 손을 거쳐 개인의 사적 욕망과 함께 건축의 공적인 책무의 영역까지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1950년대 교외 주택시장에서, 또는 2010년 서울의 슈퍼블록 내부에서 제도과 시장은 일정 수준 표준화를 이끌어내었고, 그로 인한 지역의 균질한 경관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거주자들은 그 곳에서 지속적으로 삶과 욕망을 투여하며 표준화를 변형시켜왔으며, 건축가들은 표준화를 만들었던 그 틀 속에서 거주자들의 삶과 욕망을 새로운 장치로 변환시켜오는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건축가는 건축물을 설계하고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다양한 가치를 담는다. 그 중 하나로써 위와 같은 변형의 가치 역시 특정 시기가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건축가들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였다. 다만 시대와 사회가 변화한 만큼 변형의 내용과 전략은 변화하기 마련이며 이번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담고자 했던 것은 산업화 이후 한국 사회에서 벌어졌던 변형의 가치를 위한 고민과 사고의 과정이었다.□

본 글은 2016 베니스 비엔날레 도록 *The Far Game: Constraints Sparking Creativity*에 실렸던 필자의 글, *The Value of Transformation*를 토대로 수정하였습니다.

필자 소개

신은기 교수는 20세기 중반 미국 대량생산 주택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2014년부터 인천대학교 도시건축학부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다.